

새싹포커스 1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포커스 2014년 1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장애 통합 특강



지난 12월 27일 우송관 506호에서 1학년 학생들이 아동복지 시간에 장애통합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특강 시간을 가졌다. 유아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장애통합교육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김미영선생님을 모셨다.

2시간 정도 진행된 특강은 장애통합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이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 그들의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론적으로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애통합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들 중, 일반 아동이 무조건적으로 장애 아동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의견을 묻고 도움을 주는 등 장애 아동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놀랐다.

학생들은 유아기 때의 통합교육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우리들의 이야기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다. 이 수업에서는 조별로 지정된 2가지의 생활주제에 맞춰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여 모의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받은 대로 계획안을 고치고 나서 실제로 수업하는 것과 같이 모의수업을 해보았다. 모의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았다. 항상 모의수업을 할 때에는 활동 유형 2가지씩을 준비했었는데 마지막 모의수업은 전일 수업으로 준비하여 등원부터 하원 및 평가까지 직접 교사가 되어 해볼 수 있었다.

계획안과 모의수업을 실제와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평소에 놓쳤던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환경에도 맞게 수업해야 하고 아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에도 자연스럽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상호작용도 해야 했다. 또, 모의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서 항상 바쁘고 힘들었다.

. 처음 해보는 모의수업이라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배운 것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져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머리에 새기게 된 교수님의 말씀이 있다. "무엇을 하든지, 그 타당한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을 계획할 때, 이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이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를 안다면 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더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하는 계획의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 실습에 나가서도 이 점을 잊지 말고 수업을 잘해나갔으면 좋겠다. 또한, 이번에 모의수업을 하며 느낀 것들을 다시 생각하며 더 준비가 잘 된 실습을 하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이야기

유아교육과 제 4대 학생회의 새해다짐

학회장 박지원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제 4대 학생회 학회장 박지원입니다.

먼저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우 여러분, 갑오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간 학년 대표를 맡으면서 받았던 여러분의 지지와 믿음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지와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생회장으로서 더 열심히 학과가 발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제 4대 학생회는 '나오고 싶은 학과, 선후배 간의 소통, 다함께 만들어 가는 유아교육과' 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학생회 지켜봐 주시는 학우 여러분과 교수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학회장 강소영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4대 학생회 부학회장을 맡게 된 강소영입니다.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유치원 교사가 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들도 더 생기게 된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한해에는 학생회의 일

원으로 유아교육과가 더 화합이 잘 되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친구이자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유아교육과 파이팅!

홍보부장 박하영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4대 학생회 홍보부장을 맡은 박하영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학생회의 임원으로서 맡은 홍보부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후배가 화합하며 다니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노

력하겠습니다.

문화부장 홍수정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4대 학생회 문화부장을 맡은 홍수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 학생회를 하게 되면서 책임감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선배와 후배와의 소통이 잘 되는 학과가 되었으면 하는 목표도 생겨 함께하는 유아교육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술부장 김은희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4대 학생회 학술부장을 맡은 김은희입니다.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로 선후배 간의 화합과 돈독해질 수 있는 1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반영하여 소통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총무부장 최연희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4대 학생회 총무부장을 맡은 최연희입니다.

2014년 제 4대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회장과 부학회장 및 여러 부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여 더 발전된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3대 학생회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혜나눔 프로젝트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구를 알아보자!

요즘 더욱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장애통합’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예비 유아 교사로서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 공학 및 서비스가 대체로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장애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보조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하고, 여러 가지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말을 배우는 사람이나 언어 장애로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대화 장치라는 보조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음성을 녹음할 수 있고, 녹음한 음성을 들어볼 수도 있으므로 미리 녹음해놓은 음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작동방법은 원판에 그림을 넣고 그에 알맞은 말을 녹음하여 필요시에 해당 그림을 눌러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단어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기기명은 ‘All-turn-it’으로 상징 정신지체, 발달 장애, 언어장애아를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입니다. 건



전지가 필요하며, 스위치 활성화로 바늘을 회전시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수, 색, 모양과 같은 기본적 개념을 이해시키거나, 게임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흰 속지도 따로 판매되어 다른 내용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보조기구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 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찾아볼 수 있으며 필요한 보조기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활 공학 서비스 연구 지원센터 사이트에서도 보조공학 서비스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고 보조기구 대여도 가능합니다.

특수교육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금, 예비교사로서 구체적인 보조공학 및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면 특수아동에게 더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김진영 교수님



밝은 얼굴로 인사 하고, 툭툭이 독서를 하자.

나는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선·후배, 더 나아가 교내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2014년이 되었으면 한다. 인사를 잘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어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할 때 대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나 사회생활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초 능력으로 대인관계능력을 꼽고 있다. 인사를 잘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것이고, 이는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습관을 지녔으면 한다.

다음으로 나는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하고 싶다. 많은 이들이 독서의 장점을 말하고 있으니,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튼튼한 대로 독서하기를 권한다. 도서목록과 독서일지를 작성하면 자신의 독서량과 경향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하다.

우송유치원 소식

외식



1월 16일에 우송 유치원 만 3, 4, 5세 종일반 유아들과 함께 퓨전 한식점 '비비고' 로 가서 외식을 하였다. 가기 전에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숫자 뽑기를 통해 외식을 가서도 짝끼리 행동하며 서로 도와주었다.



같은 숫자가 나온 형과 동생이 함께 짝이 되었다. 외식을 가서도 짝끼리 행동하며 서로 도와주었다. 이를 통해 형들은 뿌듯함을 느끼고 동생을 챙기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동생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겨울 계절학기 특강



1월 24일에는 겨울 계절학기 특강을 하였다. 연령에 따라 다른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만 3, 4세는 도자기 특강을 하여 먼저 흙을 탐색하고, 그릇을 만들어 전시하였다. 만 5세는 사진 특강을 하게 되어 개인



사진기를 준비하여 먼저 사용방법을 배우고 각자 사진을 찍어보았다.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찍은 사진 중에 몇 가지를 선정하여 직접 사진첩을 만드는 활동도 해보았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지윤 김유리 김예슬

박지원 박명옥 손혜원

강현아 김수민

김지송 김지예

